

【 2017.6.5(월)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5일 오전
11시 춘천시 동
면 도회 회의실
에서 제2차 운영
위원회를 열고
협회 및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



경제성장을 깜짝 성장... 건설투자 효과 톡톡

건설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 1분기 경제성장이 경중 뛰어올랐다. 설비투자와 수출 등 민간 영역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1.1% 늘었다. 한은이 지난 4월 발표한 1분기 성장률 속보치인 0.9%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분기 단위로 1%대 성장률은 지난 2015년 3분기(1.3%)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 2015년 3분기에는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있었지만 올해 1분기는 건설과 설비투자, 수출 등 민간 중심으로 성장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건설투자 성장률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올해 1분기 건설투자 성장률은 6.8%로 지난해 1분기(7.6%) 이후 4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건설투자 성장률은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1.5%포인트 확대됐다. 속보치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3월 건설기성이 반영되면서 성장률 수치가 크게 상향조정됐다.



1분기 GDP 전분기比 1.1%↑
건설·설비 투자·수출 호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정체

1분기 건설업 성장률은 5.3%로 2009년 1분기 6.2% 성장 이후 가장 높았다. 전년동기 대비 기준으로 1분기 건설업 성장률은 1994년 4분기 12.2% 이후 무려 93분기 만에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체 성장률에서 건설투자의 기여도도 높아졌다. 올해 1분기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에서 건설투자는 1.1%포인트

트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된 주택 물량이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설 선행지표인 수주가 나쁘지 않아 건설투자가 갑자기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설비투자와 수출 등도 1분기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4.4% 증가했고, 수출은 2.1% 증가해 전분기(-0.1%)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다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4%다. 전분기 0.2% 성장보다 0.2%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저조한 성장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 기대감으로 구매를 연기하는 경향이 있었고,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았다"면서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하고 있어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